상반기 사찰경영지도자과정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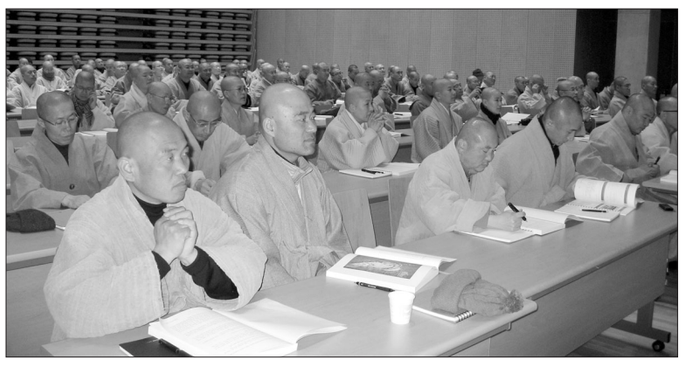
교육원,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서 12월까지 30여 강좌 개설 예정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스님)이 출가자 재교육을 위해 연간 상설로 주최하는 연수교육이 지난 21일 공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시작됐다. 올해 첫 프로그램은 4박5일 일정의 사찰경영지도자과정으로, 150여 명의 스님들은 사찰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습득했다.

첫날인 21일 강사로 나선 포교국장 남전스님은 '포교전략과 포교활성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스님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남전스님은 "스님이 항상 포교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모든 사업의 시작에 앞서 사찰의 재정환경을 비롯해 재가종무원과 신도조직의 역량을 냉정하게 평가하라"며 "종무원과 신도 조직을 활용하려면 과감한 투자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역량평가가 끝났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포교해야 할지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남전스님은 "사찰포교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지역에 기반해 지역 내에 불교위상을 정립하고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사찰의 이미지화 작업을 병행해 지역 사회와 사찰 구성원 사이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낸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동국대 교수 법산스님은 '주지란 무엇인가'라는 첫 강연을 맡아 올바른 주지상에 대해 법문했다. 스님은 "주지는 설법뿐만 아니라 참선, 기도, 염불의식, 행정, 복지, 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에 만능이 돼야 한다"며 "또 삼보정재를 아끼고 인간관계를 등한시해서는 안되며 각종 유혹이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잘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21일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열린 연수교육에 참석한 스님들이 강의를 듣고 있는 모습.

올해 처음 도입된 '성보문화재의 이해와 불사관리' 강의는 심주원 총무원 문화팀장이 맡아 진행했다. 심 팀장은 사찰 문화재가 갖는 공공성과 공익성과 함께 문화재 보수와 관련한 제반 행정 처리방법에 대해 강연했다. 이와 함께 올해 새로 개설된 김재서 세무사의 '사찰세무'도 눈길을 끌었다.

제21교구본사 송광사 총무 진경스님은 "프로그램 내용도 알차고 꼭 주지 소임을 맡기 위해서가 아닌 수행정진하면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개인적으로는 포교의 중요성이나 수행자로서의 자세 등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25일까지 진행된 이번 연수교육에서는 재무회계, 상담지도, 리더십, 자원봉사활동 등 12개 강좌가 열렸다. 한편 교육원은 오는 12월까지 30여개 강좌를 개설해 운영한다. 강좌 내용과 일정은 교육원이 발간한 〈2011 연수교육안내〉 또는 연수교육 신청 홈페이지(monkedu.buddhis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주=어현경 기자

총무원장 자승스님, 미숙아에 후원물품 전달

동국대 일산병원 방문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17일 출생시 1000g 전후한 체중으로 태어난 미숙아를 집중치료하는 고양 동국대 일산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을 방문, 환아에게 후원물품을 전달하며 건강하게 성장하길 기원했다. 특히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미숙아 가운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환아를 1년동안 매달 1명씩 선정해 3개월치 미숙아용 특수기저귀를 지원하게 됐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병원이 재정적으로 조금 힘들더라도 미숙아를 위한 집중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양=박인탁 기자

사찰 이자소득세 환급된다

3월31일까지 관할세무서 신청가능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부장 성월스님)는 "중앙종무기관과 본말사가 사찰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세 14%를 원천징수 당하고 있다"면서 "세법상 원천징수된 금액을 오는 3월31일까지 일정 절차를 밟으면 환급받을 수 있다"며 이자소득세 환급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관할 세무서에서 부여받은 사업자번호 중 가운데 두자리가 '82'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은 오는 3월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2010년 이자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재무부는 2009년분 이자소득원천징수금을 환급받은 사찰은 종교고유목적(법당 불사금, 포교,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에 환급금을 사용했다는 '고유목적사업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이자소득세 환급신청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내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02)2011-1751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현 선운사주지 법만스님 차기 주지후보로 '선출'

19일 산중총회서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주지 법만스님이 지난 19일 경내 회의실에서 열린 산중총회에서 제16대 주지 후보로 추대됐다.

선운사 재적승 및 말사 주지스님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산중총회에서 스님들은 향후 4년간 선운사를 이끌 제16대 주지 후보로 법만스님을 추대했다. 당초 현 주지인 법만스님과 보원스님이 출마하였으나 문중화합을 통해 한명의 후보를 내자는 문중의 뜻을 받들어 보원스님이 용퇴한 가운데 단독으로 출마하게 되었다. 법만스님은 이번 산중총회 결의에 지난 2007년 4월4일 선운사 제15대 주지로 취임한 이후, 다시 선운사를 이끌게 됐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범여스님)은 단선증을 교부하고 "선운사의 화합과 종단의 발전, 그리고 대중에게 봉사하는 선운사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법만스님은 당선인사를 통해 "선운사의 화합을 위해 용퇴한 보원스님에게 감사하며 교구 발전과 문중의 화합을 통해 안정된 종무행정과 사회복지 , 문화, 포교 등 선운사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을 다짐했다. 법만스님은 1982년 태허스님을 은사로 출가, 부산 금강선원 주지 를 거쳐 1995년 선운사 참당암에 선원을 개설 선원장을 역임하고 2007년부터 선운사 15대 주지 소임을 맡았다.

이래훈 전북지사장

직지사서 사미(니) 수계교육

교육원 3월7일까지…113명 참가

각 사찰에서 행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한 사미(니) 수계교육이 시작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스님)은 22일부터 오는 3월7일까지 14일간 제8교구본사 직지사에서 40기 사미(니) 수계교육을 진행한다.

남행자 76명과 여행자 37명이 참가한 이번 수계교육에서는 사미(니) 율의와 기본습의를 익히는 시간이 마련된다. 또 직지사 주지 성웅스님의 특강과 송광사 율원장 도일스님의 부처님 생애와 기초교리 강연, 전영산율원장 도일스님의 〈범망경〉과 해인사 승가대학장 법진스님의 〈초발심자경문〉, 〈고승전〉 강의가 이어진다. 이밖에도 일보일배, 삼보일배, 3000배 등이 교과에 포함돼 있다. 한편 회향 하루 전날인 3월6일에는 5급 승가고시가 치러진다. 승가고시 합격자에 한해 사미(니)계를 수지할 수 있다. 어현경 기자

'이슬람 채권법' 발언 관련 한나라 이혜훈 의원 '사과'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 홍보팀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슬람 채권법을 조계종이 반대했다는 이혜훈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지난 17일 발언은 사실이 아니며, 이에 대해 이 의원도 공식사과를 해왔다"고 밝혔다. 기획실 홍보팀은 "이슬람채권법문제는 국가 경제정책과 관련된 문제로써 종교가 개입할 영역이 아니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조계종은 찬반 입장을 밝힌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불교계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된 적이 전혀 없다"며 "이 의원은 2월19일 오전 조계종에 공식적인 사과 표명을 했으며 언론 등에 이메일과 문자로 사실을 정정했다"고 발표했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현장에서

포교도 홍보전략 시대

봄을 맞아 전국 사찰이 불교기초교리 강좌 준비로 부산하다. 조계종 사찰은 법적으로 신도 입문교육과 기본교육을 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따지지 않더라도 포교를 위해 불교교리 강좌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매년 정기적으로 불교기초교리 강좌를 열어 본 사찰이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처음 교리강좌를 열려고 하는 사찰의 고민은 상당하리라 본다. 결론적으로 교리강좌의 성패는 적극적인 홍보전략이 좌우하게 된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지하철 무료신문을 펼치는데 '조계사 3월 봄 교육강좌 안내'라는 광고가 눈에 들어왔다. 광고비가 얼마인가를 떠나 조계사의 적극적인 신도교육 홍보전략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고양에 있는 길상사를 방문해 보니 주지스님이 스티커를 하나 보여주셨다. 버스승강장에 부착하는 것으로 '승강장은 우리 모두의 공공재산입니다. 승차 시 안전벨트를 꼭 착용합니다. 문화시민은 승강장에서 낙서 파손 담배꽁초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다.'라는 계도성 문구를 넣어 놓았다. 그 아래 '아름다운 절 대한불교조계종 길상사(불교대학 정기법회)'라는 작은 문구와 전화번호가 있었다.

주지스님은 비용을 들여 신문지 간지나 현수막을 부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뒤띔했다. 바야흐로 포교도 적극적인 홍보전략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절에서 기도만 하면 신도가 찾아오는 시대가 아니라는 뜻이다. 교리강좌를 준비하는 사찰이 참조했으면 한다.

여태동 기자 tdyeo@ibulgyo.com

제186회 중앙종회(임시회) 집회 공고

종헌 제39조 및 중앙종회법 제14조, 제15조 규정에 따라 제186회 중앙종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합니다.

— 다 음 —

▣ 집회일시 _ 불기2555(2011)년 3월 8일(화) 오전 10시
▣ 회 기 _ 불기2555(2011)년 3월 8일(화) ~ 3월 12일(토)(5일간)
▣ 집회장소 _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 주요 안건
1. 종법 제 · 개정의 건
2. 불기2554(2010)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기타

◆ 의안 접수 기한 : 3월 2일(수)까지
◆ 종책질의 접수 기한 : 3월 3일(목)까지

※ 의안 및 종책질의는 구비 서류(홈페이지 참조)를 갖추어 위 기한까지 중앙종회 사무처로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FAX 등을 통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종회의원 스님께서는 가사장삼을 착용하시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2555(2011)년 2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보선